

일반인 방송 전성시대, 그 명과 암 : 일반인 예능 펄펄 나는데 논란도 끊이지 않는 이유



글. 정덕현
칼럼니스트

들어가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하고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게 옛말이 된 것 같다. 최근 TV를 켜면 연예인들보다 일반인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보다 일반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

연예인 프리미엄이 사라진 일반인 전성시대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토크쇼들의 시청률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예인들의 신변잡기나 짧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중들이 식상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이른바 리얼 예능이 새로운 트렌드로 들어왔을 때는 토크쇼도 리얼 토크쇼라고 해서 주로 연예인들의 사적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사한 토크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연예인 토크쇼들은 그 소비 또한 빨라지게 되었다.



유재석이 진행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놀러와>
(출처 : MBC 홈페이지[www.imbc.com/
broad/tv/ent/yoonkim/])

이런 연예인 토크쇼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유재석이나 강호동 같은 발군의 MC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조차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유재석의 <놀러와>가 거의 3%대까지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폐지되어 버렸고, 다시 돌아온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나 그가 새로 시작한 <달빛프린스> 역시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이경규가 이끌고 있는 <힐링캠프> 역시 마찬가지다. <힐링캠프>도 초기의 호평에 비해서 많이 힘이 빠진 양상으로 현재는 프로그램의 형식보다는 어떤 게스트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시청률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연예인들보다는 일반인이지만 유명인들이 출연했을 때 시청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같은 일반인이 출연하는 토크쇼는 일정하게 10%대의 시청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토크쇼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흔히

들 말하는 이른바 연예인 프리미엄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률 정보

일일 주간 2013.12.09(월) ~ 2013.12.15(일)

· 종합 · 드라마 · **예능**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1	개그콘서트	KBS2	17.8%
2	무한도전	MBC	14.7%
3	일밤	MBC	13.6%
4	전국노래자랑	KBS1	12.7%
5	놀라운 대회 스타킹	SBS	12.5%
6	일요일이 좋다	SBS	11.6%
7	스타주니어쇼 봉머리	SBS	11.5%
8	해피선데이	KBS2	11.4%
8	궁금한 이야기 Y	SBS	11.4%
10	정글의 법칙 in 사바나	SBS	10.7%

① 시청률은 지상파 프로그램 기준이며, 방송일 기준 익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제공 : 닐슨코리아)

주간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에서 일반인 출연 예능이 6개(3~8위)나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네이버[www.naver.com] 시청률 정보 캡처)

일반인 예능 전성시대가 가능해진 가장 큰 전제조건은 일반 대중들의 방송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방송이라는 것이 이제 연예인 같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것. 과거의 방송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힘들며 또한 그 카메라 앞에서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매체의 대중화는 이런 방송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의 영역을 무너뜨렸다. 이미 우리는 휴대폰이라는 카메라를 늘 들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험을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방송 출연의 욕구를 갖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방송이나 영상이 일상화되다 보니 거기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방송 내용을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토크쇼에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대중들의 관

심을 자아냈지만 이제는 연예인이 나오면 또 홍보하네 하는 식으로 대중들이 바라보는 게 예삿일이 되었다. 이렇게 달라진 대중들의 시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작진들에게도 일반인들의 방송 투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 된다는 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쇼가 일반인들을 방송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이런 일반인들과 제작자 양자 간의 욕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거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반인이 가진 아마추어리즘은 참신할 수는 있어도 또한 방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방송을 잘 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연예인이라면 자신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대개 감지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몰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나아가 사회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인들에게 방송사는 슈퍼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예인들이라면 매니지먼트를 통해 이 부분이 관리되지만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 소비되거나 심지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슈퍼스타K〉와 〈 짹 〉에 논란이 된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은 〈슈퍼스타K3〉에서 처음 등장했다. 즉 〈슈퍼스타K3〉는 일반인들이 경연을 벌이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이나 속내를 숨기지 않고 편집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참가자는 너무 이기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참가자는 독선적으로 보여지기도 했다. 사실 똑같은 정황도 어떻게 편집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편집의 힘이다. 즉 ‘악마의 편집’이란 결국 누군가에게는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편집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슈퍼스타K3〉에서는 이 문제로 참가자 중 한 팀이 중도에 자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한 참가자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많이 보였는데, 이것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폭주하기도 했다.



악마의 편집 논란이 있었던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출처 : 헤럴드경제, 「슈퍼스타 K3, 예리밴드 악마의 편집? 논란 일파만파」, 2011년 9월 19일자)

남녀가 일주일 간 한 공간에 머물면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짝>에서도 ‘악마의 편집’ 논란은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 출연자 중에는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방영됨으로써 방송 후에 당사자에게 시청자들의 비난이 폭주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그 방송 내용이 실제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방송 윤리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방송은 어쨌든 출연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문제가 실제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만한 것이라면 적절히 편집을 해주는 것이 연출자의 도리라는 점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은 노골적으로 일반인이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를 입더라도 그들을 활용한 셈이 된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미에는 조작적인 편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윤리성이 거세된 시청률만을 위한 편집이라는 뜻도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조작방송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12기 <짝>에 출연했던 한 남성이 게시판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건은 단적인 사례다. 이 남성은 ‘최종결정에서 압력에 의한 조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짝>은 스스로의 프로그램 정체성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로 맞게 될 수 있었다. 물론 <짝> 제작진은 이러한 조작 방송 논란에 대해서 “출연자 누구에게도 선택을 강요하거나 거짓상황을 연출하여 방송하지 않습니다. 6박 7일 동안 애정촌 생활은 가감 없이 촬영되고 그 일부가 편집되어 방송됩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이번 촬영에서도 제작진이 여자6호에게 남자6호를 선택하지 말라고 강요했거나 남자6호와 스태프와의 마찰을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문제제기를 한 남자6호가, 제작진으로부터 여자6호가 받은 문자와 제작진과 자신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고까지 말한 상황과는 전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아무야 사라져버렸지만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본격화되면 생겨날 ‘편집 조작의 공포’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대표적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 짜(출처 : SBS 프로그램 '짜' 방송 캡처)

물론 ‘악마의 편집’이란 방송이 좀 더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려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다. 방송은 출연자들을 통해 뭔가 극적인 스토리를 엮어내려 하는 것이 본능적인 생리다. 그래야 시선을 잡아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왜곡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한쪽 시각으로 본다면 다른 쪽 시각은 억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편집을 통해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흔히 대중들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그것이 리얼 그 자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다큐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엮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다큐 같은 장르에서조차도 카메라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 극적인 장면을 위해 어느 하나의 시선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악마의 편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악마의 편집보다 심각한 사생활 장사의 문제

하지만 악마의 편집보다 더 심각한 건 ‘사생활 노출’ 나아가 ‘사생활 장사’의 문제다. 과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생활 노출이나 도촬 장면이 나오는 리얼리티쇼는 케이블에서나 겨우 방



영이 되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어찌 보면 이 리얼리티쇼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는데, 오디션은 노래라는 감성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일반인 사생활 노출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상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제 노래 같은 감성적 장치 없이 사람들만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리얼리티쇼가 지상파에서도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다.

〈화성인 X파일〉이나 〈안녕하세요〉 같은 프로그램은 일반인 사생활이 어떻게 방송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지난 6월 27일 방영된 tvN 〈화성인 X파일〉에 나온 이른바 ‘시스터보이’는 도를 넘은 일반인 사생활 장사 방송의 정체를 보여주었다. ‘시스터보이’, 마마보이에서 따온 이 작명은 누나들이 동생의 엄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선정성’ 그 자체였다. 방송은 노골적으로 이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따라다니며 다 큰 남동생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하고, 1분마다 뽀뽀를 해대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에 입 바람을 불어 넣는 등 지나친 스킨십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잠잘 때까지 꼭 껴안고 자는 모습은 이게 친 남매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만들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물론 정상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아마도 사적인 차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촬영하고 방송에 공공연히 내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결국 그 피해는 해당 일반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왜 방송출연을 자청하는 것일까. 심지어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그 이유는 종종 〈화성인 X파일〉의 일반인 출연자들이 쇼핑몰 관련된 일을 하며 방송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경향에서 드러난다. 물론 이 시스터 보이가 이 노이즈 마케팅을 활용하려 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조차 조작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시스터보이 도한봉 씨가 2012년부터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피팅모델 경력이었다고 네티즌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다른 목적’으로 조작 방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화성인 X파일〉의 문태주 PD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성인들은 일반인들로, 평범하게 살던 분들이다. 방송이후 악플에 시달리다보면 항상 논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라며 “〈화성인〉이 조작 논란에 왕왕 휩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태주 PD의 인터뷰 내용 속에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은연 중에 드러나 있다. 즉 〈화성인〉은 그 방송 자체가 조작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방송 이후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악플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보이 역시 방영되었을 때 이 정도의 노이즈가 만들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일반인 출연
KBS-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출처 : KBS 홈페이지 [www.kbs.co.kr/
2tv/enter/hello/photo/index.html])



〈안녕하세요〉는 〈화성인 X파일〉의 지상파 버전처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고민자랑’이라는 형식으로 특별한 사연이나 개성을 가진 인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찌 보면 일반인 사생활을 전면에 드러내는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지상파, 그것도 KBS에서 방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명분과 특유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여주고, 그들과 관계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들 사이에 어떤 화해와 소통의 물꼬를 터주자는 기획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

세요>는 가족이 함께 출연해 가족애라는 틀 안으로 특이한 이들을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 하지만 이 기획의도대로 하려면 좀 더 신중한 접근과 편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 소개됐던 여동생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는 오빠의 사례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섬으로써 해당 출연자가 대중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

일반인 출연자가 야기하는 문제는 일반인들만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다. 때로는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3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작진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에서 <화성인 X파일>을 예로 들어 언급한 것처럼 일반인 중에는 방송의 힘을 오히려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이들 일반인 출연자들을 완벽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개인 사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스타K5>에서 말 더듬이라며 출연했던 박상돈씨가 사실은 사기 및 횡령혐의로 기소 중지 상태라고 밝혀진 것도 방송에 출연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 출연이라고 해서 연예인과 비교해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막연한 믿음이 선부른 확신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마도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 출연자들로 인해 가장 큰 파장의 논란을 보여준 건 <송포유> 사태일 것이다. SBS에서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편집자 주: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견본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송포유>는 가수 이승철과 엄정화가 각각 이른바 대한민국 하위 3%라는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합창단을 꾸려 세계 대회에까지 나가는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과거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방송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했어야 했지만 결과는 마치 일진을 미화한 것처럼 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승철이 아이들에게 “나는 전과 9범이었다”고 말한 내용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아이들의 마치 무용담처럼 쏟아낸 과거 전력을 별다른 생각 없이 내보낸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인터뷰 중 몇몇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행으로 전치 8주인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기도 했고, “전에 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그때 애들 땅에 묻고 그랬다”는 말을 자랑처럼 떠들어대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뽑아낸 방송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결과가 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애초 목적은 논란이 되었던 ‘일진 미화’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남자의 자격> 하모니편이나 영화 <하모니>가 보여준 것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목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그것은 그 자체로 소통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실제로 이승철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것은 2011년 12월 <SBS 스페셜>을 통해 방영되었던 ‘기적의 하모니’에서 그가 김천 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합창단의 멘토로 출연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고 해도 세심하지 못한 접근방식은 의도치 않는 피해자를 발생하게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가해를 한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 주목받고 심지어 폴란드 합창대회에 나갈 기회를 얻는 장면은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을 모두 배려하지 못한 제작진의 치명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능과 다큐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어찌 보면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 문제 학생들을 다루면서 <송포유>는 다큐적인 깊이로 들어가기보다는 예능적인 가벼움으로 건드린 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문제 학생들이 되어 끝단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왜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부모와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 피해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과거를 후회하는지 등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예능 프로그램이 일반인을 다루는 한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점점 더 예능쪽으로 기울어 있다

는 점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양산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송포유〉는 또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반인 출연자들의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논란이 한창 가중되고 있을 때 세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폴란드에 갔던 성지고의 김모군이 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것이다. ‘폴란드 클럽 좋구만. 굿’, ‘폴란드 클럽 5시에 마감인데 7분 남았다. 이제 폴란드의 밤도 지나가는구나. 한국 가서 소주나 X나게 빨아야지.’ ‘씨X TV 한 시간 나왔다고 악플 X되네. 자살 할란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아마도 김모군은 자신이 올린 SNS 상의 글이 이토록 뜨거워질 줄은 예상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는 그저 한 시간 방송 나온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사안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황에서 김모군의 글은 마치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 결과물을 몰고 왔다. 가뜰이나 〈송포유〉의 출연자로 선정된 아이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모군의 글은 마치 심증을 확증으로 만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방송사나 제작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 전에 미리 계약서를 통해 요목조목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간다면



송포유에 참가한 김모군이 SNS에 올린 글은 큰 논란이 됐다.
(출처 : News1, 「‘송포유’ 출연 학생, 폴란드 클럽 출입 인증샷?」, 2013년 9월 23일자)

모를까 이렇게 갑자기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발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즉 <송포유> 논란은 이제 우리네 방송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시사점, 즉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준 연예인 혹은 준 일반인, 연예인 가족의 문제

통제되지 않는 일반인 출연자의 문제, 일반인의 사생활을 끄집어냈을 때 대중들이 보이는 거부감 그리고 이른바 일반인들의 ‘악마의 편집’ 논란에서 벗어나면서도 연예인과는 다른 결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급증한 출연자군이 바로 연예인 가족이다. 연예인 가족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일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다. 해당 연예인의 아우라를 어느 정도 가져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정서는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인 트렌드’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뒤에 가족으로서의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편집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완전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에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 출연 중인 윤후와 윤후 안티카페 검색 캡처 (출처: 스포츠조선, 「윤후 안티 카페」 개설자에 비난 못물 “열등감 집단”, 2013년 6월 10일자)



서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또한 연예인이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통제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아빠 어디가〉는 연예인 가족을 내세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것은 거기에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아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송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다. 따라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거의 없다. 100% 순수한 진심을 내보인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일반인 예능의 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송에서 포착된 사생활이나 성격 같은 것들은 때론 거기 출연한 아이들에게까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빠 어디가〉 같은 이른바 힐링 예능이라고까지 불리는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악플이 달리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사생활이 가감 없이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빠 어디가〉에 출연하고 있는 윤민수의 아들 윤후나 〈붕어빵〉에 출연해 인기를 끈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 민하는 심지어 안티 카페가 만들어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백년손님-자기야〉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오 마이 베이비〉 같은 연예인 가족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연예인 가족의 문제도 똑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이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시선도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이미지적인 특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의 정서다. 요즘처럼 이미지가 그저 인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때론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까지 부여하는 시대에 이른바 ‘이미지 권력’이 어떻게 얻어지고 사용되는가는 대중들에게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즉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방송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탐밴드〉라는 오디션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끈 장미여관이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했던 “이건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라는 말은 실로 방송 기회가 갖는 엄청난



눈시울을 붉히는 장미여관(출처 : 스포츠월드, 「장미여관 ‘무한도전’ 가요제 출연소감 눈시울 붉혀... “안타까워”」, 2013년 11월 3일자)

힘을 잘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 연예인 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이미지 권력의 세습’이 지극히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서는 대중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안티 카페 같은 결과를 낳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일반인 방송 출연, 당연한 흐름이지만 대비도 해야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이것은 과거 몇몇 지상파에 방송이 국한되어 있어 그것이 그들만의 전유물이거나 특권처럼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 다매체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한 영상이 일상화되면서 대중들의 방송에 대한 감수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스틸 사진을 찍을 때도 어색한 포즈로 멈춰 서기 마련이었지만 요즘은 동영상을 찍어도 지극히 자연스

러운 포즈가 나온다. 최근 들어 어른들 뽀치는 아이들의 연기를 심심찮게 보게 되는 것은 이미 이들의 영상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게 해주는 증거다. 아이들은 카메라에 그만큼 익숙해졌고 영상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사라졌다. 지금은 방송이 연예인 같은 특정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일반인으로 막 넘어오는 시점이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변화의 시점에 과연 법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방송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증이 안되고 통제도 안되는 일반인들의 대거 방송 출연, 이를 이용한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불리는 편집방식이 만들어내는 논란은 어쩌면 향후에 벌어질 것들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기초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도 어쩌면 이제 갓 열린 일반인들의 방송출연 시대에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방송 양자 모두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은 많은 이들이 거기 출연하면 그저 좋은 것이다, 유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것은 지금껏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과는 왜곡된 이미지로 소비되면서 겪어온 고통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한 카리스마를 방송 이미지로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고통을 감내한 최민수 씨의 사례, 또 지적인 모습이 방송 이미지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학력 논란을 겪기도 한 타블로의 사례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방송에 의해 왜곡된 사례는 일반인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에게도 부지기수로 많다.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받는 연예인들도 이럴진대 일반인은 오죽하겠는가. 연예인들의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의 일반인들의 방송 편집 왜곡에는 논란이 생길까. 물론 여기에는 힘없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더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제작진들의 문제가 있

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 스스로 방송 출연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편 방송 제작자들 입장에서 중요해진 것은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다. 단지 눈앞의 시청률 같은 성과를 위해 출연자들을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심지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를 의도하는 제작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논란 자체가 벌어지지 않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 역시 수동적으로 방송을 소비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향후 방송을 온전히 대중들이 향유하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권리 침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은 법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되어 미리 사태를 예방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반인 방송 전성시대는 시작됐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나가느냐다.



학력 논란을 겪은 타블로의 MBC 스페셜 출연 장면 캡처(출처: 미디어스, 「MBC 스페셜은 타블로 논란에 종지부 찍을 수 없다」, 2010년 10월 1일자)